

천주교 세종로성당

원죄없으신성모성심 성모순례지

0316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9
(사무실:733.1471/팩스:732.3354)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8)



세종로성당 유튜브

<http://www.sejonglo.org>

주 일 미 사	오전 6:00, 9:00(중·고등), 10:30(교중), 12:00, 오후 6:00(청년)	평 일 미 사	월~토 오전 6:00	주 임 : 박동균 도나도 신부 부 주 임 : 전창훈 시몬 신부 수녀 원 : 장 마리보나 수녀, 안 마리아야 수녀 유치원 : 임 광순이사벨라 수녀 733.1475 사목회장 : 한근영 루가 연령회장 : 양을석 바오로 010.8739.3490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오후 3:30(초등), 오후 6:00	미 사	화~금 오후 7:30	
예수성심 신심미사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7:30 (미사 후 성체강복)			
성모 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6:00			

● 예비신자 성지순례

- 일시 : 4/14(주일) 오전 9시 출발
- 장소 : 절두산 순교 성지

● 자비의 모후Cu., 여성구역 성지순례

- 일시 : 4/15(월)~17(수)
- 장소 : 제주 용수성지, 성 김대건 신부님 제주 표착 기념관, 대정성지, 정난주 마리아 묘, 황사평 성지, 추자도 황경한의 묘 외

● 중고등부 부활 행사

- 일시 : 4/7(주일) 중고등부 미사 후
- 장소 : 신문로 교육관

● 초등부 주일학교 기쁨잔치

-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시편118,24)
- 일시, 장소 : 4/27(토) 오전 10시, 소강당

● 유아세례 희망자는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을 위한 영적예물

- 기간 : 3/31(주일)~4/8(월), 9일간
- 내용 : 주교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90쪽), 성모송, 주님의 기도, 영광송
- 영적예물은 로비에 준비된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2027년 여름에 개최될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묵주기도를 봉헌하시고, 사무실에 준비된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성가대 모집

- 청년미사에 전례 봉사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 성가대 : 김효빈 로셀리나 010-7664-9996

● 성모회 물품 판매

- 청국장가루 1kg : 3만원 (성필립보 생태마을)

● 모임 안내

단 체	일 시	장 소
자비의 모후 Cu.	4/9(화) 11:30	소강당
여성구역 구역장	4/10(수) 10:00	소강당
여성구역 구.반장	4/10(수) 11:00	소강당
신자들의 도움 Cu.	4/14(주일) 12:00	신문로교육관

● 유치원, 수녀원, 교육관 공사 협조

- 평일은 공사 관계로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 공사현장은 위험하니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 (3/25~31)

• 주님부활대축일 (1,095명)	9,305,600원
•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1,685,000원
• 교무금 (79세대)	7,090,000원
• 감사헌금	1,320,000원
박옥님 50,000 익명 70,000 익명 500,000	
김현주 100,000 김현주 300,000 옥려명 200,000	
고금관 100,000	
• 건축헌금	3,850,000원
이후창 50,000 익명 100,000 조연희 50,000	
최성태 1,000,000 이자경 80,000 박승이 1,000,000	
남미진 300,000 이세민 100,000 최동영 50,000	
오동현 20,000 고금관 100,000 김정란 1,000,000	
• 총 합 계	23,250,600원

* '1,2,3,4,5월', '변정미'로 송금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납부 계좌 :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은행 124-04-112086

※ 건축헌금 납부 계좌 :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나은행 272-910032-68304



누가 토마스의 손을 보호했나?

주님의 뜨거운 옆구리에
제자가 손을 넣었을 때
그 손이 불에 녹지 않도록
보호하신 분은 누구인가?
그 불타는 뼈를 만져 불 용기와
힘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그는 분명코 그 옆구리를 만졌거늘
그 옆구리가 충만한 권능을 주지 않았다면
진흙으로 지어진 자의 오른손이 어찌
하늘과 땅을 뒤흔든 고통을
만질 수 있었겠는가?
토마스에게 주어진 것은 은총 그 자체,
그리하여 그는 만지고 이렇게 외쳤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불타는 덩불은 참으로 불에 탔지만
불타 없어지지 않았네(탈출3,3-5).
토마스의 손을 보고 나는
모세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네.
그의 손은 썩는 손이요
가시 같은 손이었지만
불덩어리 같은 그 옆구리를 만졌네.
옛날에는 가시덤불에 불이 내려왔지만
이때는 가시 같은 자가
서둘러 불에 다가갔다네.

하느님께서 그 둘 다를 지켜 주심이
목격되었기에, 나는 믿게 되었네.
그리하여 나는 하느님이며
인간이신 그분을 찬미하노니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진실로 나를 위해
믿음의 경계선이 그어졌으니
그것을 그린 것은 토마스의 손이로다.
그리스도를 만지자 그는
“능숙한 서기의 붓”(시편45,2)이 되어
믿는 이들을 위해 기록하였도다.
거기에서 믿음이 뿜어 나오니
그것을 마신 도둑은 제정신을 차렸고
제자들은 그것으로 자기들 마음에
물을 주었으며
토마스는 자기가 찾던 지식을
거기서 건져 올렸네.
맨 먼저 그 물을 마신 토마스는
확신하지 못하던 많은 이에게
그것을 주어 마시게 했네.
그들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찬미하게 만들었네.

<의심하는 토마스> 가인 로마누스 “찬가집”

가인 로마누스는 제자들이 인간이자 신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만난 사실을 독특한 시각으로 노래한다. 세례자 요한이 인간이자 신인 그리스도 몸에 손을 댄 일과 계약 궤를 만졌다가 죽음을 맞은 우짜의 일(2사무6,6-8)을 연관시키며 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짓기도 하였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본기도>